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61 (2023. 11. 03. 금)

새로운 아이들이 또 왔고 그 아이들도, 저희도 서로 적응해 가는데 쉽지는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국은 또한 내년 1월로 예정된 총선으로 인해 여야갈등으로 거리가 봉쇄되고 대사관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등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도대체 어떻게들 살아가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 센터 식비지출도 아이들이 많아진 이유도 있지만 거의 두 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아가페 현 상황

1. 아이들의 수업시간



루비나 선생님 반



살로미선생님 반

이러던 수업이 교실 전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즐지에 합반 수업을 하느라 전쟁통이 되었어여.



2. 새로운 아이들이 왔습니다.

둘 다 부모님이 안계시고 탄빌은 친척 손에, 조니는 형이 키웠던 아이인데 각기 사정들이 있어 홈에 있게 해달라고 데리고 왔기에 일단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만, 탄빌은 섭식 장애까지, 그리고 조니는 너무 커서 뛰쳐나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사랑부 교사할 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 아이를 잡으려다 질질 끌려갔던... ㅎ



탄빌-12세/중증 뇌병변, 섭식장애
 부모가 탄빌을 놔두고 각자 다시 결혼하여
 친척이 돌보고 있었어요. 약을 먹고 있는데도
 하루에 열 번 이상 경기를 해요.



조니-22세/다운증후군, 지적장애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이 돌보다가 형이 일을
 해야 해서 아가페에 찾아왔어요. 힘이 장사라
 아무도 못잡아요.

3. 오랫동안 아가페를 좋아했던 알라민이 가족을 따라 시골로 갔습니다.



엄마가 당뇨로 손가락이 썩어(?) 절단했는데 그 옆의 손가락도 또 안 좋고
 집안 일이 불가능해지자, 아버지가 리샤 운전을 관두고 집안 일과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비 및 빚으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며 모두 정리하여 시골로 갔습니다.

10월 31일에 우리 모두에게 인사하고 밤에 내려갔습니다.

시골에서 장애 학교에 보내겠다고는 했는데... 잘 연결되길 바라봅니다.

4.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드더 저보다 큰 아이가 생겼습니다. ㅋ 키도, 손도 모두 저보다
 훨씬 커버린 샤밌...

아이들이 크니 든든하긴 한데 사춘기도 오고 성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 심심찮게 일이 생깁니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목공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메헤라즈, 압둘, 파힘, 샤밌이 작업 테이블을 만들고 있어요. 톱으로 썰어도 보고, 끌로
 파내기도 하고, 망치로 두들기기도 해서 지금은 작업 테이블이 완성되었고, 다시 작은
 벤치를 만들고 있는데 성탄 행사 준비로 올해는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6. 아가페 널서리 사벨이 깊은 하수구에 빠졌어요.

일주일 이상을 센터에 못 나오고, 아프다고만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깊은 하수구에 빠져 얼굴만 내놓고 있는 사벨을 거의 한 시간 만에 간신히 찾았대요. 그 사이에 더러운 물을 엄청 마셔서 설사를 하고, 물도 못 먹고 토하기를 반복해서 병원을 두 번 옮겨 봤는데도 별차도가 없다가에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기운은 없지만 그래도 앉아 있는 사벨을 보고 감사했어요. 밥을 못 먹는다고 하여 인슈어 환자용을 사주어 먹여서 지금은 센터에 잘 나오는데 전신 피부병은 잘 낫지를 않네요.



7. 아가페 스쿨만 33명 그리고 널서리에 11명 총 4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8명이 넘어 교사 한 명을 더 충원하여 실습 중에 있습니다. 학교는 5개 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2층에 또 한 집을 얻어 학교로 쓸 예정입니다. 예배와 운동은 1층에서 함께 하고 걸을 수 있는 아이들 두 클래스를 2층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11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므로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흠은 당분간 조핀 아저씨가 맡아 주기로 했습니다. 글씨는 못쓰지만 마음 발이 좋으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서 다른 행정업무는 서로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8. 널서리의 모습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는 빠키



계단 오르기 운동하는 알리



말타기 하는 사벨과 아라판...

9. 초집중 모드- 스쿨의 게임 시간 ㅋㅋㅋ



접시로 탁구공 옮기기... 균형을 맞춰야 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ㅎㅎㅎ
눈동자가 가운데로 몰릴 만큼 초집중 모드인데
집중은 선생님들만의 몫인가여~~~ ㅎㅎㅎ

개인적인 상황

1. 새벽 최저 온도가 23도 정도까지 내려가서 살짝 가을을 느꼈어요. 문득 눈 오는 한국 거리가 그리워졌다가 화들짝 현실로 복귀했습니다. 쓸쓸마귀를 대적하며~~~ ㅎㅎㅎ 기도해 주십시오.
2. 비자 수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에는 5년 신원보증 수속까지 같이 들어가는 시기라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고옥 순적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 1) 새로 온 탄빌과 죠니가 빠르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 청소년이 된 남자 아이들이 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고옥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현재 건물의 주차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차기라도 할 수 있는 장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4) 새로운 교사 주물(여)이 실습을 잘 마치고 클래스를 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 그동안 홈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은혜가 아니었다면 1초도 잘 지낼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크고 사춘기가 되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머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6) 걷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7) 빠엘이 병원에 다녀왔고 6개월 후에 다시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운증후군 아이들의 심장천공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8) 저를 비롯한 스텝들이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날카롭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Iron sharpens iron, and one man sharpens another

방글라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한사람이 다른 한사람의 인생을 일에 맞게 단련한다.’
입니다. 방글라 성경이 훨씬 명쾌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철은 철로 단련하여 용도에 맞게
만들듯이 사람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단련이 됨을 알기에 저도 누군가의 채찍이
되고 그 누군가도 제겐 채찍이 되지만 그것이 제가 단련되고 모난 곳이 깎이어 나가는
인생의 방법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저를 만들어 나가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